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 기계 · 자동차 ·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sfng.com)
송정현 연구위원 (jhsong@bsfng.com)

월드클래스 기업은 매출 성장세,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및 영업이익 증가세 등에서 동남권 비선정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낮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월드클래스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은 R&D에 물적·인적 자원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월드클래스 기업과 같은 제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의 창의적인 역량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도 스스로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156개 기업중 동남권에서 13개사 선정

중소기업청은 2011~17년중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진출 의지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금융, 인력,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이며 거래 독립성을 확보하고 높은 성장성을 갖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청공고시 직전년도 결산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제조업 부문(일부 기타업종 포함) 중소·중견기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개요

- | | |
|--------|---|
| ■ 구분 | - 중소기업청(사업기간 : 2011~17년) |
| ■ 목적 |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등의 집중지원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 |
| ■ 신청자격 | -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SW개발공급업, 응용SW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포함)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성장률이 15% 이상인 기업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14년중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156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53개사로 가장 많으며 기계(31개사), 자동차(23개사) 및 화학(13개사)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36개 기업은 소프트웨어, 섬유, 의료기기, 금속 및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선정기업 수를 보면 수도권에서 97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동남권에서는 1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¹⁾. 그 밖에 대경권 27개, 충청권 15개이며 호남권 및 강원권에서 각각 3개 및 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1) 동남권 선정기업 13개는 나라엠앤디, 덕산하이메탈, 동화엔텍, 리노공업, 세종공업, 센트랄, 스틸플라워, 오션어스, 유니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파나시아, 파낙스이텍, 화승 R&A.(기업명 순)

업종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 현황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기업수	비중
전기전자	10	12(1)	10(1)	21	53(2)	34.0
기계	8	11	6	6(1)	31(1)	19.9
자동차	4(1)	4(1)	6	9(4)	23(6)	14.7
화학	4	5	1	3(1)	13(1)	8.3
기타 ¹⁾	4	5	10(1)	17(2)	36(3)	23.1
계	30(1)	37(2)	33(2)	56(8)	156(13)	100.0

주 : 1) 기타는 금속,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약품, 섬유, 식료품 제조업

2) ()내는 동남권 기업수

자료 : 중소기업청

본고에서는 이 중 동남권 주요업종인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의 월드클래스 선정 기업과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남권에서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은 제조업 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30.9%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중 분석대상은 매출액 규모가 4백억원~1조원이며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으로서 2011~13년중 선정된 전국 49개사²⁾ 중 자료이용이 가능한 34개사이다. 동남권 기업중 비교대상 기업은 매출액 규모(2013년 기준)가 월드클래스에 선정되지 못한 동남권 212개사중 자료이용이 가능한 93개사(이하 '동남권 비선정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월드클래스 34개사의 경우 기계 20개, 자동차 8개, 화학 6개이다.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는 기계 45개, 자동차 32개, 화학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대상 기업중 월드클래스 기업의 2013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2,030억원으로 비선정기업 1,871억원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동남권 선정기업 8개사의 2013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2,744억원으로 월드클래스 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 2014년 선정기업의 경우 선정 이후 성과를 반영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분석대상기업 현황

(개, 억원)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기업수	평균 매출액	기업수	평균 매출액
기계	20	1,655	45	1,083
자동차	8	2,901	32	3,335
화학	6	2,122	16	1,157
전체	34	2,030	93	1,871

주 : 평균 매출액은 2013년 기준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이들 3개 업종에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동남권 기업은 자동차 6개사, 기계 및 화학 각 1개사로 총 8개사이며 이는 월드클래스 67개사의 11.9%에 해당한다. 동남권 선정기업 8개사의 주력제품은 자동차 업종의 경우 에어컨, 자동변속기 부품, 소음저감장치, 불조인트, 제어계측시스템, 호스 및 고무부품 등이며 기계 업종은 해양 플랜트 유지보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공사, 화학 업종은 디스플레이신너이다.

[참고]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주요 지원시책

항 목	지 원 내 용
기술확보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최대 15억원(연간) 지원
시장확대	• 최장 5년간 연간 1.4억원 이내에서 종합지원(기업 50% 부담)
인력확보	• 기술개발, 글로벌화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연구인력 파견지원(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분야 해외전문인력 채용지원(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자금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 선정기업 대상 신성장동력펀드 투자상담회 개최 • 선정기업 자금 및 한도 우대지원
컨설팅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경영컨설팅, 글로벌화컨설팅, IPO컨설팅, 특허분쟁 컨설팅 등

주 : 2013년 선정기업 지원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남권 기계·자동차·화학 업종중 선정비율 3.6%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매출액 선정기준(4백억원~1조원, 2013년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기업 중에서 동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의 비율을 보면 동남권이 대경권 및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는 대상기업 132개사중 12.9%(17개), 수도권에서는 496개사중 7.3%(36개)가 선정된 데 비해 동남권은 220개사중 3.6%(8개)만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계업은 동남권이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의 32.6%(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대경권(8.6%)을 크게 상회하지만 대경권에서 5개 기업이 선정된데 비해 동남권에서는 1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대경권의 경우 의약품 자동포장기(세계 1위), LCD용 금속박막 장착장비(국내 유일), 농기계(국내 1위), 대용량 공기압축기(국내 1위) 등 다양한 제품군의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월드클래스에 선정되어 있다. 동남권 기계업 중 유일하게 선정된 기업은 해양플랜트 및 구조물 관련기업이다. 동남권 기계업은 주로 조선, 건설 등과 관련된 대기업에 납품하는 범용적 제품 비중이 높아 제품 다양성 및 혁신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및 화학 업종에서도 대경권이 동남권보다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³⁾

권역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비율

(개, %)

구 분 ¹⁾	사업체수 ²⁾ (A)	선정기업수(B)	선정비율(B/A)
동남권	220	8	3.6
수도권	496	36	7.3
대경권	132	17	12.9
충청권	160	5	3.1
호남권	58	1	1.7
계	1,066	67	-

주 : 1)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2) 매출규모가 4백억원~1조원 범위내에 있는 기계·자동차·화학 업종 사업체수

자료 :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3) 2011~14년중 업종별 월드클래스 선정기업수는 자동차의 경우 동남권 6개, 대경권 10개이고 화학은 동남권 1개, 대경권 2개, 기계는 동남권 1개, 대경권 5개.

월드클래스 기업은 동남권 비선정기업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성장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의 월드클래스 기업 34개사 평균 매출액은 2009년 1,268억원에서 2013년 2,03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5%에 이른다.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는 2009년 1,450억원에서 2013년 1,871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에 그쳤다. 월드클래스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동남권 비선정기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 모두 월드클래스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동남권 비선정기업보다 높았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월드클래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7.2%인데 비해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5.2%에 그쳐 매출액 증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월드클래스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세는 연평균 76.5%를 기록한 기계업종의 수도권 소재 아이씨디로 AMOLED용 5.5세대 High Density Plasma Etcher 제품에서 국내 및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2013년 기준)하고 있다. 한편 동남권 기업 중에서 월드클래스에 포함된 2개사(자동차업)는 각각 연평균 36.5%, 14.9% 증가하여 전체 월드클래스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12.5%)을 상회했다.

매출액 증가율 현황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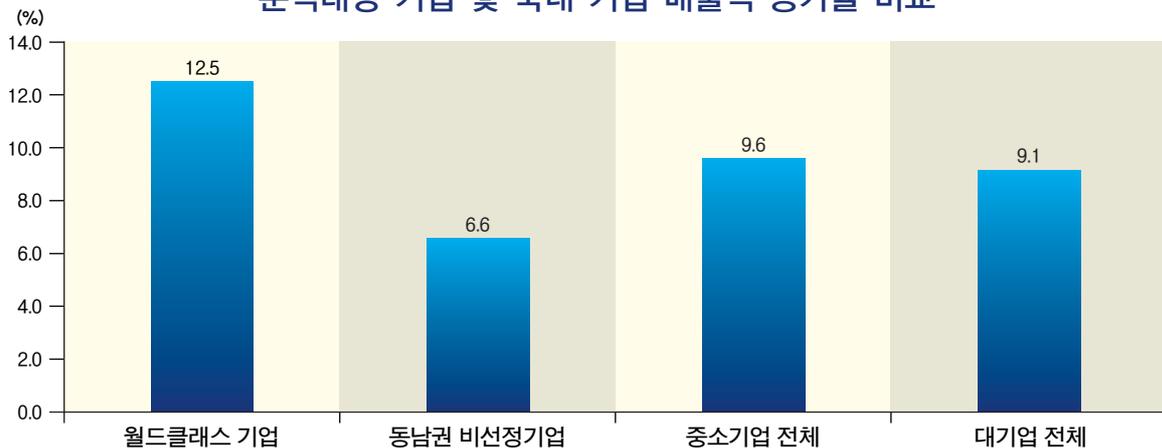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평균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평균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9년	2013년		2009년	2013년	
기계	1,079	1,655	11.3	757	1,083	9.4
자동차	1,539	2,901	17.2	2,728	3,335	5.2
화학	1,538	2,122	8.4	842	1,157	8.3
전체	1,268	2,030	12.5	1,450	1,871	6.6

주 : 월드클래스 기업 34개사,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 기준 2010~13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한편 2010~13년중 월드클래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12.5%)은 국내 전체 중소기업(9.6%) 및 대기업(9.1%)의 증가세와 비교해도 높았다. 그러나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다.

분석대상 기업 및 국내 기업 매출액 증가율 비교



주 : 2010~13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월드클래스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5.8%로 동남권 비선정기업 1.1%를 크게 상회

월드클래스 기업 34개사의 R&D투자액은 2009년 35억원에서 2013년 84억원으로 연평균 24.4% 증가했다. 이는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가 2009년 14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의 R&D 투자액은 기계, 자동차 및 화학 업종 모두에서 동남권 비선정 기업을 상회했다. 특히 화학 업종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기업의 R&D 투자액은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투자액의 약 30배에 달했다.

한편 월드클래스 기업의 최근 3년간(2011~1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5.8%로 월드클래스 신청기준 2%를 크게 상회했으나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1.1%에 그쳤다. 월드클래스 기업중 자동차 업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2배 수준이며 기계업은 6배, 화학업은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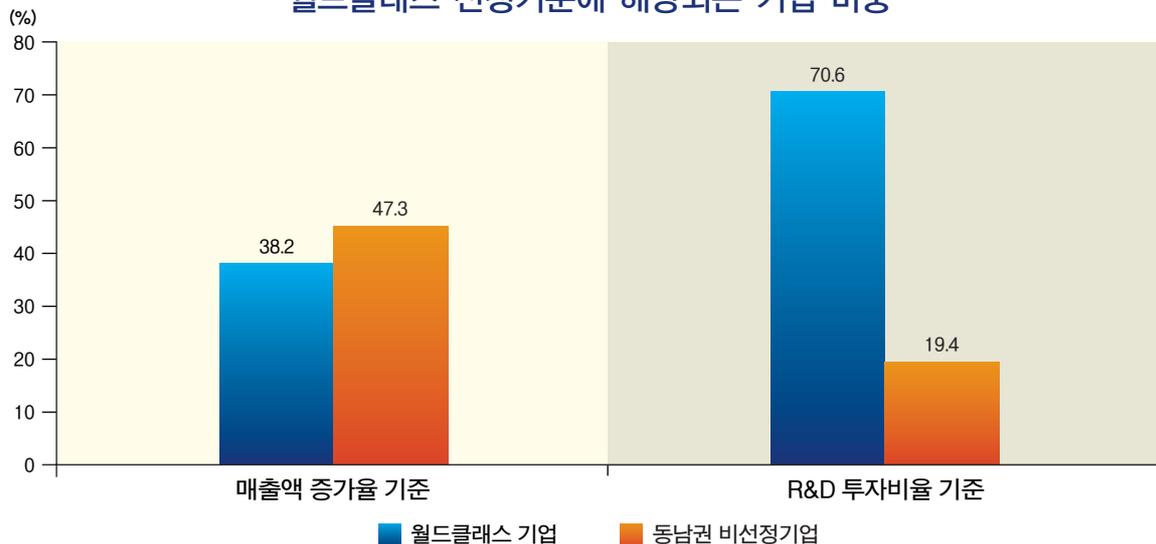
(%)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기계	5.2	10.4	6.7	7.4	1.0	1.3	1.3	1.2
자동차	2.0	2.1	2.4	2.2	1.1	1.1	1.2	1.1
화학	4.4	5.1	5.9	5.2	0.3	0.4	0.7	0.5
전체	4.3	7.5	5.5	5.8	0.9	1.1	1.2	1.1

주 : 월드클래스 기업 34개사,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 기준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매출액 규모가 4백억원~1조원 규모의 기업 중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면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5%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율 2% 이상이어야 한다. 월드클래스 조사대상 34개사 중 매출액 증가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38.2%에 불과했으나 R&D 비율 기준(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율 2%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70.6%에 달했다. 반면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은 47.3%로 오히려 월드클래스 기업보다 높았으나 R&D 비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은 19.4%에 불과했다. 즉 동남권 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R&D 비율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은 것이다.

월드클래스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비중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참고】 히든챔피언

■ H. Simon은 히든챔피언*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경제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

- H. Simon은 미텔슈탄트(중소·중견기업)에서 성장한 히든 챔피언의 절반이 독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독일 경제의 경쟁력 원천이라고 주장

* H. Simon의 히든챔피언 선정기준

- ①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 ② 매출액은 50억유로 이하 ③ 대중인지도가 낮아야 함

** 독일 미텔슈탄트 기준 : (종업원) 500명 미만,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 기업수는 320만개(99.7%), 고용인원은 2,140만명(79.2%)

■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쟁력 요인

①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개척

- 전문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여 세계적 기술력을 축적하고, 사업 초기부터 해외시장 적극 진출

* 히든챔피언의 74% 이상이 창업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 추진(H. Simon)

②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독일은 '이원적 직업훈련(Dual system)' 및 '마이스터 제도' 등을 통해 숙련된 전문인력을 꾸준히 공급하는 구조

* 고등학생 60%가 일과 학습 병행훈련을 받고, 졸업후 58%가 바로 취업

③ 안정적 장기적 경영전략 및 관계형 기술금융

- 가족기업이 대부분인 히든챔피언은 장기적 관점의 내실경영을 지향하고 지역은행과 신뢰에 기반한 자금조달체계 구축

* 가족기업은 독일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기업수명은 평균 85년 내외

④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독일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업상호간 협력 및 기술 표준화 등 공통적 문제 해결

* 2013년 현재 독일 전역에 327개의 산업클러스터가 활발히 활동 중

⑤ 경제개혁 정책 수립 및 지속적 추진

- 슈뢰더 총리는 "Agenda 2010"(2003.3월)과 "Hartz 입법"(2003~05)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제도 혁신 정책 수립 및 시행

- 후임 메르켈 총리도 전임자의 개혁안에 공감하고 이를 지속 추진

자료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2014.10.30, 경제관계장관회의)

월드클래스 기업 영업이익은 연평균 8.6% 증가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연평균 13.8% 감소

월드클래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09년 63억원으로 동남권 비선정기업 106억 원의 59%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88억원으로 동남권 비선정기업 59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2010~13년중 월드클래스 기업은 연평균 8.6%의 이익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같은 기간중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13.8% 감소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동남권 기업 수익성 비교

(백만원, %)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평균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	평균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
	2009년	2013년		2009년	2013년	
기계	5,018	8,403	13.8	16,269	4,282	-28.4
자동차	4,457	10,865	25.0	4,429	7,021	12.2
화학	12,938	7,088	-14.0	111,628	126,694	3.2
전체	6,284	8,750	8.6	10,596	5,850	-13.8

주 : 월드클래스 기업 34개사, 동남권 비선정기업 93개사 기준 2010~13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월드클래스 기업의 영업이익 신장세가 높은 것은 우수한 경쟁력의 주력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제품 중심으로 시장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이익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5개 기업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5개 기업의 경우 국내 혹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중 동남권 기업으로서 자동변속기 제어용 솔레노이드 밸브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크는 2010~13년중 연평균 52.3%의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월드클래스 분석대상 기업 34개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증가율 및 흑자전환규모 상위 5개 기업 주력제품 특징¹⁾

구분	영업이익 증가율 ²⁾ 5개 기업			흑자전환규모 상위 5개 기업	
	기업명	증가율(%)	특징	기업명	특징
1위	유지인트	78.3	탭핑센터 국내 1위	와이지원	앤드밀 국내 및 세계 1위
2위	유니크	52.3	자동변속기 제어용 솔레노이드밸브 국내 1위	피에스케이	감광액제거기 국내 및 세계 1위
3위	인팩일레스	47.9	차량용 안테나 국내 1위	에스엔 유프리시전	PSIS등 측정검사장비 세계 1위
4위	우진플라임 ³⁾	46.6	사출성형기 국내 1위	아이씨디	AMOLED용 식각장비 세계 1위
5위	계양전기	35.0	전동공구, 예초기 국내 1위	일진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국내 1위, 세계 5위

주 : 1) 월드클래스 기업 기준 2) 2010~13년중 연평균 증가율
 3) 2012년 우진세렉스에서 우진플라임으로 사명 변경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 기업은 부채비율 개선

월드클래스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평균 부채비율이 121.8%로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180.8%보다 낮다. 또한 월드클래스 기업은 부채비율에서 2013년에 2009년 대비 9.7%p 하락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동남권 비선정기업은 오히려 18.1%p 상승하며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요가 크게 위축된 기계업종의 경우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동남권 기업 부채비율

(%, %p)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평균 부채비율		증감 (B-A)	평균 부채비율		증감 (B-A)
	2009년(A)	2013년(B)		2009년(A)	2013년(B)	
기계	100.2	91.3	△8.9	154.0	203.8	49.8
자동차	184.0	162.3	△21.7	179.3	178.5	△0.8
화학	165.7	169.6	3.9	154.8	123.6	△31.2
전체	131.5	121.8	△9.7	162.7	180.8	18.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월드클래스 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도 우월

2013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수가 492.9명으로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303.2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과 화학업종에서 두 그룹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월드클래스 기업의 고용인원은 2010~13년중 기업당 156.5명 증가하였으나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경우 증가인원이 기업당 47.9명에 그치고 있어 월드클래스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동남권 기업 고용 현황

(명)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		증감 (B-A)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		증감 (B-A)
	2009년 (A)	2013년 (B)		2009년 (A)	2013년 (B)	
기계	306.8	439.5	132.7	162.8	216.1	53.3
자동차	383.6	526.3	142.7	446.7	496.6	49.9
화학	372.0	626.5	254.5	132.9	161.3	28.4
전체	336.4	492.9	156.5	255.3	303.2	47.9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월드클래스 기업과 동남권 비선정기업의 업력은 비슷한 수준

월드클래스 기업의 평균 업력은 25.8년(2014년 기준)으로 동남권 비선정기업 23.1년 보다 2.7년 길었다. 업종별로는 기계, 자동차 업종은 월드클래스 기업이 동남권 비선정기업보다 약 3~4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 업종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독일 경영학자 H. Simon(2012)⁴⁾이 선정한 전세계 히든챔피언 2,734개 기업의 평균 업력은 66년이며 특히 100년 이상 기업이 38%에 이를 만큼 장수업력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538만개(개인기업 포함) 기업 중 60년 이상 법인기업은 0.003%인 184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업력이 길지 않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동남권 기업 업력¹⁾ 비교

구 분	월드클래스 기업	동남권 비선정기업
기계	25.1	20.9
자동차	28.1	25.0
화학	25.0	25.8
전체	25.8	23.1

주 : 1) 설립연도 기준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4) Simon, Hermmann(2012), Hidden Champions – Aufbruch nach Globilia, Campus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지역기업의 R&D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좀처럼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수출의존형의 동남권 경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에 따라 환율이나 대외 경기상황 등 대기업의 수출여건이 변동하면 지역 중소기업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취약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월드클래스 기업과 같은 제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월드클래스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R&D에 물적·인적 자원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동남권 기업의 경우 대체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우선 부산시 등 지방정부의 전략산업 또는 선도기업 지원과 중앙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융합부품 소재산업, 해양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등 5개 전략산업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선정기준도 대체로 월드클래스 선정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프로젝트 선정기업중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R&D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R&D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모노즈쿠리⁵⁾ 기반기술고도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등 전문학교(한국의 상업 및 공업고등

5) 모노즈쿠리(物作り, 물건만들기)는 과거 농경작이나 가내수공업 제조를 의미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체에 적용가능한 개발-생산-판매 전과정에 좋은 흐름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

학교에 해당) 시설 및 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에 대해 강의와 현장교육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부인재 활용에 집중하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내부인재들의 장기적 육성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의 작센주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요청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분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우수인력의 90%는 2년 후에도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이어간다. 기업문화의 선제적 경험을 통해 본인의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도 10~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도 인력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히든 챔피언의 경우 74% 이상 기업이 창업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성장전략 추진이 가능한 것은 우수인력을 통한 R&D 실행 및 기술력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의 창의적인 역량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스스로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장기근무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통령표창 수상

감사합니다



부산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최우수은행에게 주어지는
[2014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드리는 상생의 은행' 으로서
늘 지역과 함께 하는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www.bsin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sfng.com

BS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S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